

RI TRE

전가동향

한국전기연구원, 동북아 전력계통 연계 학술 심포지움 개최

한국전기연구원과 국제에너지기구(IEA), 아시아·태평양 에너지연구센터(APERC), 러시아 보스톡 에너지회사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동북아 전력계통 연계 학술 심포지움에는 11개국 15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러시아, 중국, 일본, 북한, 몽골 등 동북아 6개국의 전력계통 연계의 가능성을 타진했다.

동북아 전력계통 연계사업은 각국의 전력망을 상호 연결, 전력을 유통시킴으로써 전기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해외 전력자원 개발, 운전비용 절감, 신뢰도 향상 등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한국전력공사, 중기지원 대폭 강화

한국전력공사는 원자재난과 고유가 등의 여파로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006년까지 약 65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확대계획'을 확정, 시행에 들어간다.

주요내용은 살펴보면 ▲연구개발 촉진과 ▲구매확대 ▲기술이전 ▲마케팅 지원 등으로, 오는 2006년까지 약 650억원 가량을 투자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 활발한 기술개발 및 전력품질 등에 지원한다.

특히, 한전은 우선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돕기 위해 △협력연구개발 사업의 지원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정보화기술개발 사업도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한도를 상향 조정하였으며, △유망 전력벤처 및 싱글 PPM 인증기업, 연구과제 수행기업 등을 대상으로 해외견학과 연수비용의 75%까지 지원한다.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를 확대를 위해서는 △개발 선정품 지정제도를 강화, 우수연구개발 제품을 2년간 구매보장하고 △협력연구개발 과제로 개발한 제품의 신속한 구매 △규격과 가격 등 2단계 경쟁입찰 시행 시 규격입찰서 평가기준을 사전에 공개하는 한편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가점을 부여, 여성기업을 우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전의 보유기술을 개방, 중소기업에 이전하기 위해 △중소기업 및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보유기술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전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5억원 내에서 개발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해외마케팅 활동을 돕기 위해 △해외시장 개척 및 국제전시회 참가를 각각 연간 6회까지 지원하고 △한전 납품실적기업과 연구과제 수행기업에 수출컨설팅 비용의 75% 수준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청, 연구장비 무료 개방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연구장비 부족 해소를 위해 전국 지방청이 보유하고 있는 5천여 대의 모든 장비를 100% 무료 개방한다.

이는 신제품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연구장비 부족 또는 고액의 시험비용부담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지방청 장비를 부담없이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의욕을 고취하고 개발비용을 절감해 주는데 그 취지가 있다.

지방청 연구장비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이 02년 3천여업체에서 지난해에는 3,800여개사로 늘어나는 등 매년 이용수요가 증가함을 감안할 때, 금번 연구 장비의 완전 무료 개방으로 중소기업의 개발비용을 연간 30억원 정도 비용 경감효과가 기대된다.

앞으로 중소기업청은 지방청이 실질적인 지방중소기업의 "R&D 지원센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유장비 100% 무료 이용개방(휴일, 야간 포함)제도"를 지속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방청을 중심으로 대학·연구기관 간 "지역장비공동활용 네트워크"를 더욱 활성화하여 대학·연구기관 장비의 중소기업 이용개방을 촉진해 나가며 각 지역내 장비수요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 지역산업특성에 맞도록 연 70억원 규모의 장비를 확충해 갈 방침이다.

